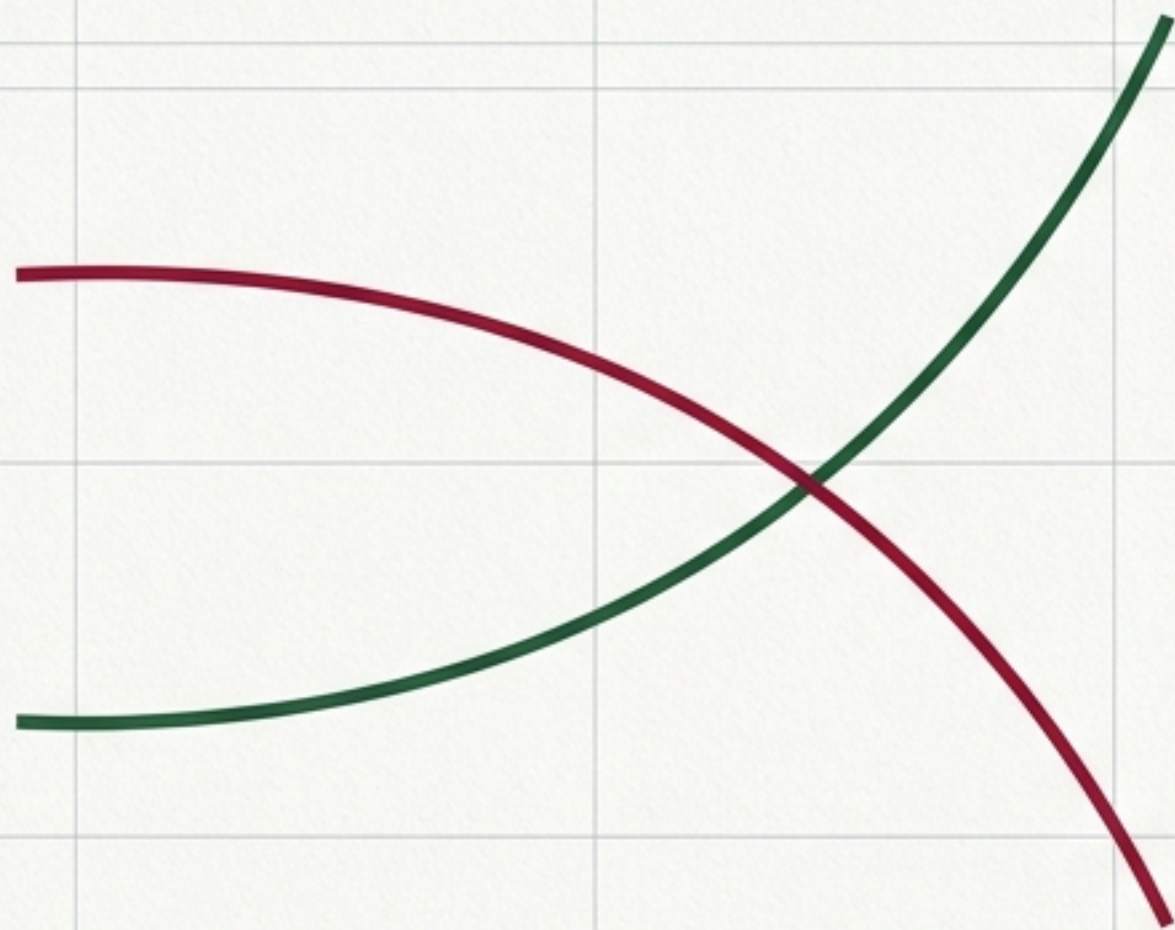


2026년 9월 22일 글로벌 매크로 및 시황 브리핑



모멘텀과 중력의 변곡점

기관 투자자 및 펀드 매니저를 위한 일간 전략 대시보드

KOSPI 7,000 탈환

7,007.7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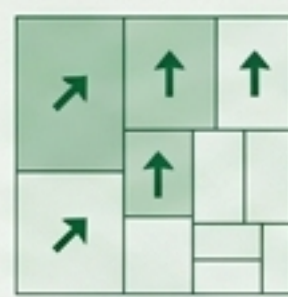
동력: 삼성전자
5% 급등 및 기관
1.5조 순매수



나스닥 사상 최고치

51,682.64
[+2.26%]

동력: 메타·인텔
중심의 AI/CPU
반도체 랠리 재점화



국채 10년물 5% 임박

4.972%
[+5bp]

리스크: FOMC 매파
기조 유지로 인한
밸류에이션 부담 가중



상승 동인 (Catalysts)

- 글로벌 AI·반도체 랠리 동조화 (나스닥 최고치 & 삼성전자 급등)
- 지정학적 혼풍 기대감 (미·중 시진핑-트럼프 정상회담)
- 유가 하락 (인플레이션 압력 완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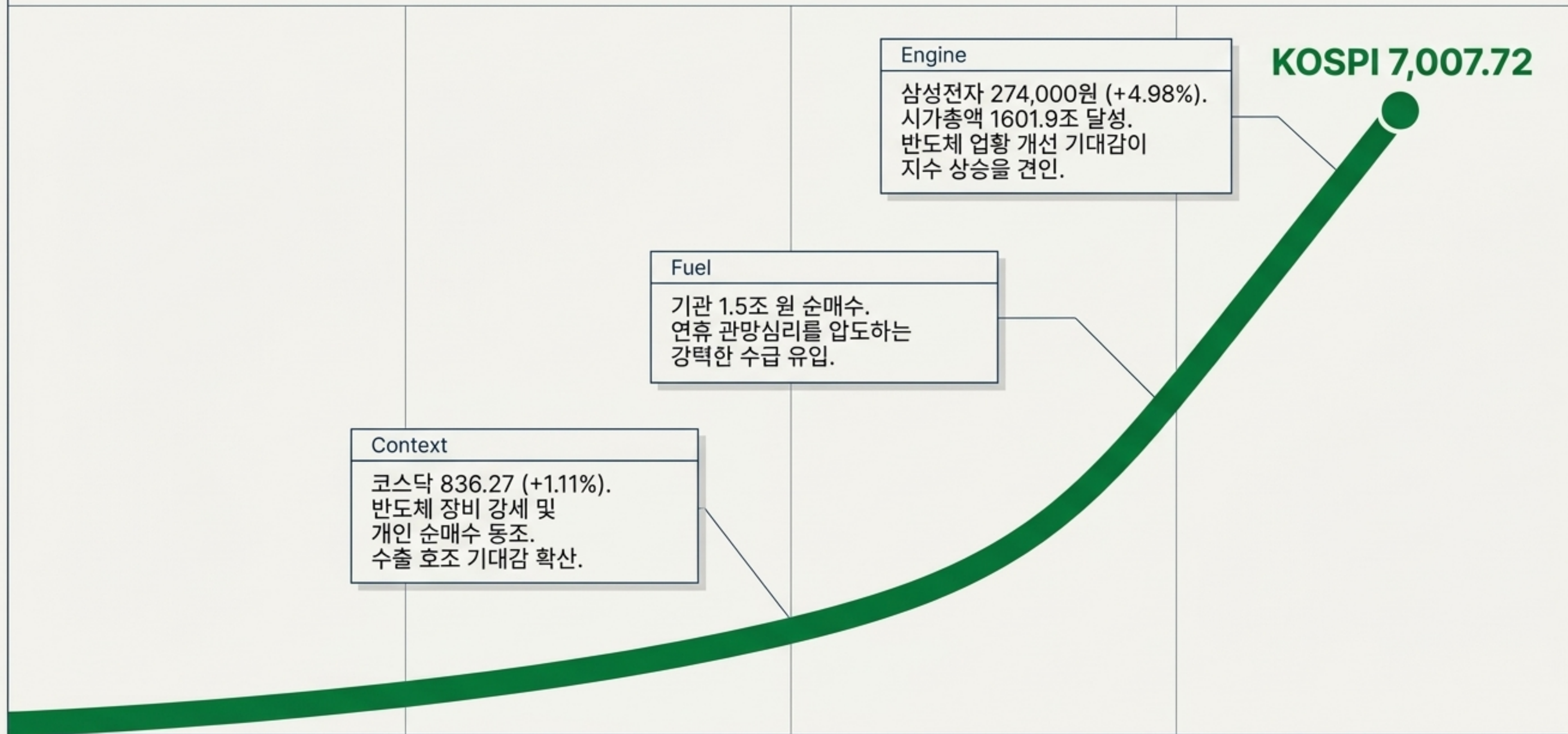
하방 압력 (Headwinds)

- 고금리 장기화 (미 국채 10년물 4.972% 돌파)
- 연준(Fed)의 지속적인 매파적 시그널



**시장 방향성은
이 팽팽한 줄다리기에서
누가 먼저 임계점을
돌파하느냐에 달렸습니다.**

국내 증시: 코스피 7,000 시대의 귀환



미국 증시: AI 낙관론 재점화와 나스닥 4개월 만의 사상 최고치

나스닥: 51,682.64 (+2.26%) / 다우: 51,682.64 (+2.01%) / S&P 500: 7,650.50

매크로 나비효과

국제 유가 나홀 연속 하락



인플레이션 우려 완화



기술주 투심 폭발

META & INTEL

CPU·반도체 랠리 주도

섹터 흐름

정보서비스(+0.97%),
자유소비재(+1.00%) 강세

비트코인

\$67,350 (+ \$1,240),
ETF 순유입 및 위험자산
선호 지속

글로벌 증시: 지정학적 혼풍이 빚어낸 동반 상승

China/Hong Kong

항셍 25,042.71 (+1.18%) /
상하이 3,215.00 (+0.45%).
시진핑-트럼프 정상회담
담판 기대감 및 AI 수요 연동
반도체 매수세.

Europe

DAX 24,998.00 (+0.80%) /
FTSE 100 (+0.79%).
우크라이나 평화협상
기대감 및 방산주 강세.

Japan

일본 닛케이: 휴장
(국민의 휴일).

고금리 국면 속에서도 미·중 정상회담 등
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가 글로벌 투자 심리를 견인 중.

FICC 매크로 진단: 엇갈린 시그널 매트릭스

우호적 시그널 (Equity Friendly)

환율 (원/달러)  ₩1,374.79 (-5.30)

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.
외국인 국내 증시 유입 환경 조성.

국제 유가 (WTI)  \$64.89

이란전 외교적 해법 기대로 인한 유가 하락세.
인플레이션 압력 완화.

경계 시그널 (Equity Hostile)

채권 (미 국채 10년물)  4.972% (+5bp)

FOMC 매파 기조 반영.
주식 시장 밸류에이션에 직접적 압박.

금 (XAU)  \$500 (+ \$18)

안전자산 선호 심리 여전.
중동 등 잔존 리스크 반영.

리스크 점검: 5% 마지노선 (The 5% Threshol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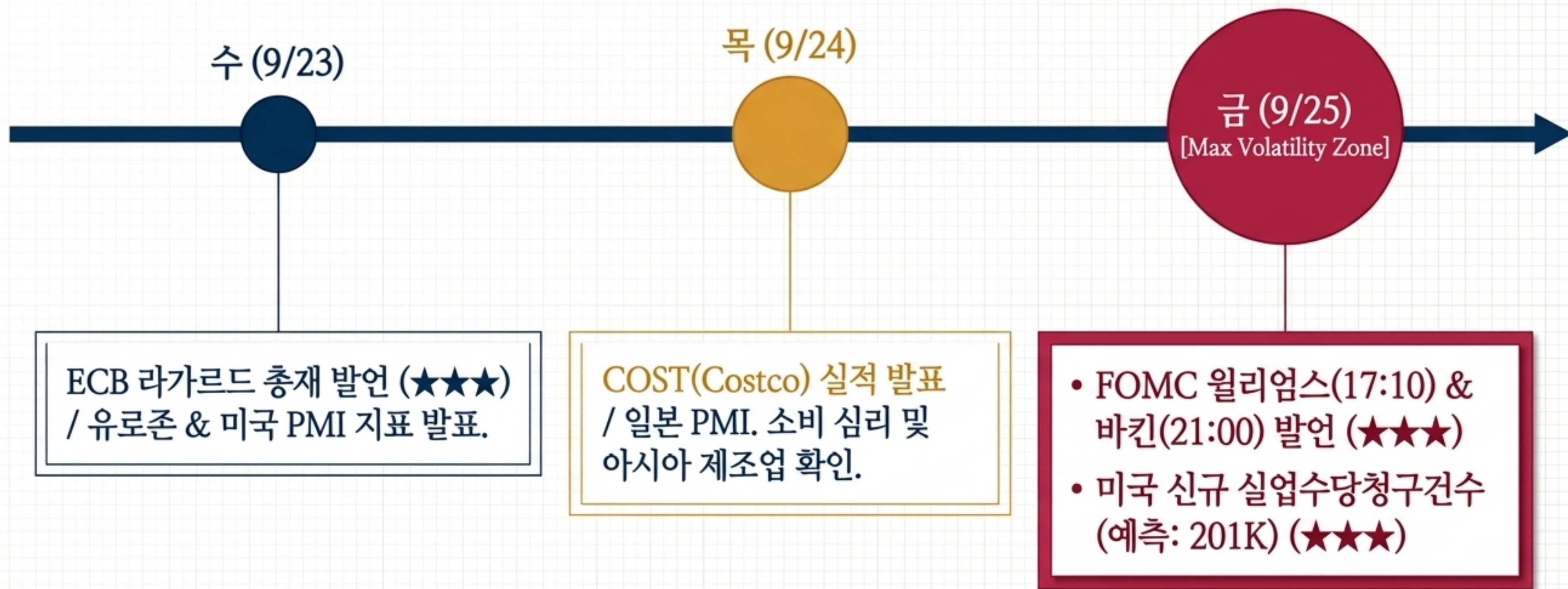
Stress Gauge

Current State: **4.972%** (전일 대비 +5bp)



국채 금리 5% 돌파 시, 무위험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 나스닥 최고치를 경신 중인 기술주 및 AI 섹터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(할인율)이 직접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. 랠리의 지속성을 좌우할 최대 핵심 변수입니다.

주간 이벤트 레이다: 연준 신호 확인을 향한 타임라인



Insight: 25일 데이터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금리 인하 경로가 최종 재평가될 예정.

최종 전략 합성 및 액션 플랜 (Strategic Synthesis)



1. 반도체·AI 추세 추종 유지 (Trend Following)

삼성전자 7천선 회복과 나스닥 사상 최고치로 증명된 AI 모멘텀은 여전히 시장의 주도 테마입니다. 핵심 테크주 비중 유지가 유효합니다.

2. 5% 금리 임계점 모니터링 (Risk Radar)

미 국채 10년물(4.972%)의 5% 돌파 여부를 장중 최우선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.

3. 주 후반 변동성 대비 비중 관리 (Tactical Hedging)

25일 예정된 연준(Williams, Barkin) 발언과 고용 지표 확인 전까지, 고점 도달 섹터에 대한 단기적 비중 관리가 필요합니다. 미·중 정상회담 뉴스플로우에 따른 장중 변동성에 대비하십시오.